광양경제청 올해 투자 유치 돋보였다

1조3915억 유치 작년의 2배 달해

1인 1기업 유치활동 성과 일자리 3426개 신규 창출 내년 20억 달러 달성키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희봉)이 올해 투자유치 실적을 결산하고 내년 투자유치 목표와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광양경제청은 그동안 '세월호' 참사와 산단개발 지연, 엔저, 주력산업인 철강금속 분야 침체, 미국 반덤핑 관세 및 금리인상 등 국내외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 왔다.

◇**투자유치 총력**=광양경제청은 25일 "지난해 6985억원의 약 2배인 1조3915억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올해 거두고 3426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광양경제청은 대내외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투자설명회 26회, 잠재투자가 초청 설명회 46회, 방문상담 255회와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687개 구축하는 등 투자유치에 집중했다.

광양경제청은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올해보다 157억원이 증가한 613억원을 확보해 15개 국비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내년 국비사업 확보는 전남도가 421억원, 경남도가 192억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순천 팔마~신대단지간 도로개설 36억원 ▲광양 신덕지구 진입로개설 45억원 ▲황금산단 용수 공급시설 등 110억원 ▲세풍산단 진입도로 및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설계용역 등 110억원 ▲율촌 제2산단 진입도로 설계용역 등 74억원 ▲화양지구 간선도로 개설 등 46억원 ▲하동 갈사만 간선도로 개설 72억원 ▲하동 대송·갈사만산단 간선도로 개설 120억원이다.

특히 지난 9월 '위기극복 TF팀'을 구성, '전 직원의 1인 1기업 투자유치 및 투자 요원화'해 잠재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분야별로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했다.

그 결과 금호석유화학 1220억원, 이멕스아이엔시 329억원, 샘소슬 230억원 등의 투자를 이끌어 냈다.

또한 지에스디케이 900만 달러, 비즈포스트그룹 1000만 달러 등 2000만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다.

여기에 미국 비즈포스트와 외국인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해 2200억원의 투자의향을 이끌어냈으며, 총 29개 기업에 5920억원의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인력창출 효과도 '톡톡'**=최근에는 보스팩(주)과 (주)신영이앤피, (주)해성금속, (주)다온테크 4개 유망기업이 광양만권에 544억원을 투자했다. 이들 기업의 투자로 150명 가량의 고용이 기대된다.

(주)해성금속와 (주)신영이앤피, (주)다온테크는 율촌산단에 각각 300억원, 200억원, 2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보스팩(주)은 산업·식품용 포장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20억원을 율촌자유무역지역에 투자할 예정이다.

광양경제청은 오는 2020년까지 250억 달러 달성을 위해 내년 정량목표를 20억 달러로 설정하고 '바이오소재 발굴 및 기능성 화학소재단지 조성' '첨단·제조기업 집중유치' '신재생에너지 관련 앵커기업 유치' '복합물류 및 냉동냉장 물동량 창출업체 유치' '특화된 권역별 해외 투자유치'에 나선다.

이를 위해 '1인 1기업 투자유치'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많은 기업이 광양만권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이끈다는 방침이다.

광양경제청 신태욱 투자유치본부장은 "국내외 생산시설 투자를 하려는 기업들을 찾아가 홍보 및 현장설명 등을 통해 고부가 틈새 기업을 집중 공략해 맞춤형 투자유치에 사활을 걸었더니 성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중앙부처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과의 유기적인 관계 및 로드맵을 미리 준비해 국비 확보에도 적극 대처하고 있다.

한편 광양 경제청은 개청 이후 179개 기업 141억 달러의 국내외자본 투자유치를 통해 3만4756개의 일자리를 만들며 동부권 경제발전을 견인해 왔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비즈포스트 그룹 의료기관 설립 투자협약.

금호석유화학과 투자협약 체결.

지난 11월 유럽지역을 대상으로 한 해외투자설명회(IR).

중국 대승동방실업 투자그룹과 투자협의중인 이희봉 청장.(오른쪽 중앙)

옥곡 5일시장 시설현대화 완료…'관광시장' 탈바꿈

광양시 옥곡 5일시장이 도시형 관광시장으로 탈바꿈됐다. 광양시는 최근 광양 옥곡 5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완료하고 개장했다. 〈사진〉

지난해 10월 시설 현대화 사업에 들어가 총 사업비 80억원을 들여 8586㎡(건축 전체면적 4580㎡) 부지에 점포 56곳과 지붕이 있는 장옥 10곳, 노점 232곳, 주차장 85면 등 현대식 건물로 건립했다.

1962년 개장한 옥곡 5일시장은 면 단위 시장임에도 지역의 농·수산물을 직거래하고, 값싸고 신선한 농수산물을 사려는 외지인이 많이 찾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5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내년도에 25억원을 투입해 옥곡 5일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 정기적인 문화예술이벤트 행사지원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내년 광양 매화축제 3월14~22일 개최

내년 광양 매화축제가 3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열린다.

광양매화축제 위원회(위원장 김휘석 광양문화원장)는 지난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회의를 갖고 축제기간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개최되는 매화축제는 지금까지의 외형적인 중심의 행사를 지양하고, 꽃을 보러 오는 상춘객들이 편안하게 다녀갈 수 있도록 내실있고 담백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축제 명칭도 '제18회 광양 매화축제'로 변경했다.

또한 지난 2013년 착공해 완공을 앞둔 '매화 문화관'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매실 체험 행사와 프로그램도 주변 마을에 위탁키로 했다.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행사에 참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관동마을, 금천마을 등 권역별로 분산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김휘석 위원장은 "지난 축제의 지적사항인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차난 해소대책과 노점상을 철저히 통제하겠다"며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섬진강 매화로 몸과 마음을 함께 힐링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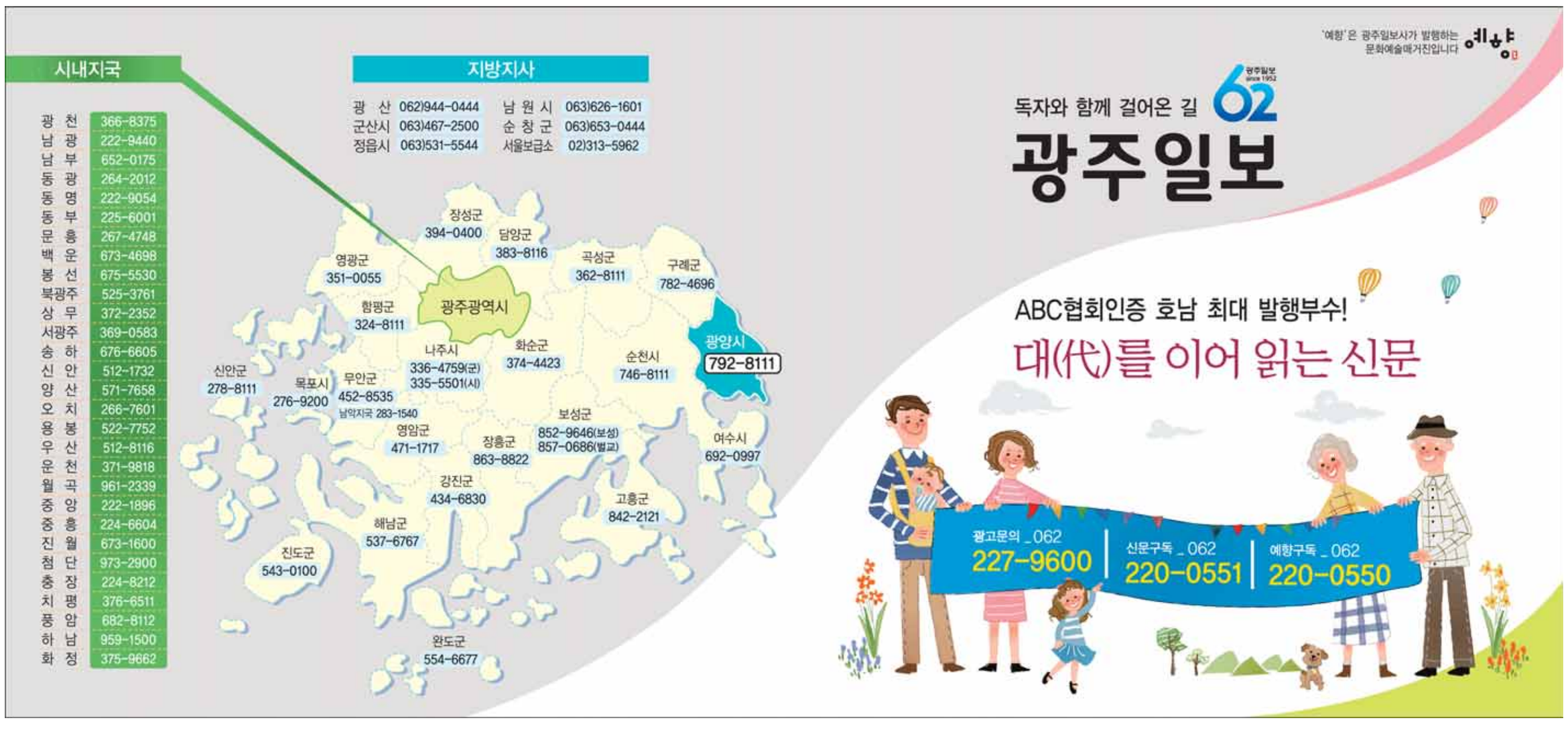
봉강 각비 지석묘군 등 향토문화유산 4건 지정

광양시는 지난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문화유산 보호관리위원회를 열고 향토문화유산 4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신규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은 ▲봉강 각비 지석묘군 ▲광양읍 삼광사 소장 불서 ▲봉강 거연정 ▲진월 차사리 용암세장 등 총 4건이다.

'봉강 각비 지석묘군'은 일부 상석이 묻혀 있지만 원형이 거의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잘 보존돼 있고, 다양한 형태의 지석묘를 관찰할 수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삼광사 소장 불서인 '몽산화상어록약록'(1573년)과 '선종영가집'(1684년)은 불교수행자들이 지켜야 할 규범과 부처의 지혜를 전파하는 수행서로서, 판각한 연대와 사찰명이 기록된 것으로 불교사연구 뿐만 아니라 한글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1898년 박희권 선생에 의해 건축된 '봉강거연정'은 신교육을 위한 교육 장소뿐만 아니라 매천 황현선생이 거연정에 대한 연유와 주변 풍경을 묘사한 거연정기를 지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1929년 건립된 '진월 차사리 용암세장'은 지방 양반집 주거양식을 반영해 건축학적 의미가 큰 건축물이다.

한편 광양시는 4건의 지정예고가 끝나면 기존의 11건(유당공원 내비군, 진월 돈탁마을 숲, 광양 수성당 등)을 포함한 총 15건의 향토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